

뉴욕 시립대학교 대학원 시국 선언

The Graduate Center, City University of New York

뉴욕 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우리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한국 사회의 깊은 분노와 실망을 함께 느끼고 있다. 오늘의 사태는 부패한 권력과 권력에 기생하는 자들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삼권분립이 와해된 사회에서 제대로 감시받지 않는 권력의 독주에는 끝이 없으며, 그 종착역은 부패와 독재이다. 이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는 한국 사회의 온갖 고질적 병폐를 아우르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혁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장래의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현 사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시대의 실천하는 지성이 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박근혜 정권과, 현 정권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국회, 권력에 영합해 진실의 은폐와 왜곡에 앞장선 거대 언론의 책임을 묻는다.

지금이야말로 오랫동안 쌓여온 이러한 폐단을 청산할 기회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지고 당장 국정에서 손을 떼라. 박근혜 대통령은 보통의 사람들이 희생을 통해 빚어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민국 국민에 사죄하고 사퇴하라.

하나. 검찰은 봐주기 수사를 중단하라. 수사의 엄정함을 저버리는 것은 국정농단의 연장이다. 법의 집행자로서 검찰에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모든 자들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책임이 있다. 권력 아래 줄서서 국민과 사회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책임을 유기한 정부 각료들,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으로,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에 동조한 모든 이들, 권력에 줄을 대고 불평등 양산에 기여해온 재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관련자 처벌을 시작으로, 국민은 이들이 이름과 겉모습을 바꾸고 다시 권력 주위를 맴돌지 못하도록 스스로 끊임없이 깨어있는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단순한 지식의 생산자와 전달자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범법자는 처벌받고 노력하는 자는 보상받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정의가 확립된 세상을 물려줄 책임이 있다. 우리가 배우고 가르친 것과 세상이 다르지 않음을, 세상을 우리가 바꾸어나갈 수 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부정한 권력이 또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능멸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학자로서 전문가로서 교육자로서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실천으로서의 학문을 지향하며, 깨어있고 관찰하며 묻고 기록할 것이다.

2016년 11월 10일

뉴욕 시립대학교 대학원 한인 학생회(Korean Students Association) 일동